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9호 【루계 제25292호】 주체105(2016)년 5월 28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옥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 김옥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7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위원장인 필리페 자씬뚜 뉴씨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대표단 단장인 엘리씨우 죠아낌 마차바통씨가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최대의 신뢰와 존경의 표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그이에 대한 최대의 신뢰와 존경의 표시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력사적사변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웠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더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영국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혁명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이것은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의 표시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또한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불패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8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 대규모적인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까지 주강직장을 현대화하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밀고나갈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국산화된 세계적수준의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 로동계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환구망, 국제방송망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올렸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김정은명도자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연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로 된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한 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중국, 민주통고, 도이췰란드의 통신,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세계적인 양묘장을 건설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22호양묘장의 년간 생산량이 2 000여만그루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묘장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들을 평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조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완공한 청년돌격대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도자께서는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자력자강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움으로써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매달려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친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아르구멘띠 네델리》, 스푸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 에르베까, 일본의 교도통신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이르꾸쯔크블로그스로뜨, 루》, 중국의 동북망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체스꼬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네팔신문《아르관》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실었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이 아군 해군함정에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 감행

오늘 27일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측 서남해상에 침범하여 정상적인 근무수행중에 있던 아군 해군 련락선을 향하여 40mm기관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군부깡패들은 새벽 5시 53분부터 7시 20분사이에 4차에 걸쳐 괴뢰2함대소속 페속정 3척과 해양수산부소속 어로지도선 1척을 백령도서쪽과 연평도서남쪽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6.4km까지 침범시키는것으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을 개시하였다.

우리측이 여러차례 경고하였지만 괴뢰군부깡패들은 뻔뻔스럽게도 자기측 수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우겨대면서 함선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그러던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측 수역에서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오던 아군 해군 련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기관포를 련발로 란사해대는 용납할수 없는 군사적행동을 감행하였다.

괴뢰들이 마구 선불질해댄 아군 해군 련락선은 우편물송달과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무장이 없는 배이다.

이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는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대한 고의적인 침범행위로도 부족하여 무장이 없는 아군 해군 련락선에까지 포사격을 가하는것으로 정세를 극한으로 몰고가 우리가 도발에 말려들게 한 다음 또다시 반동언론들을 내세워 우리의 도발로 여론을 오도시켜보려는 괴뢰들의 악랄한 흉심의 발로이며 상투적인 수법이다.

해상도발에 이어 괴뢰군부는 즉시 수원공군기지에 있는 전투비행단에 비상출격대기태세를 갖출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면서 이번 도발을 확전시키기 위해 분별을 잃고 발광하였다.

이로 하여 이 수역의 정세는 한치앞도 예측할수 없는 폭발전야의 최대긴장국면에로 치닫고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서남전선부대들은 보복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발자들은 무모한 선불질을 해댄 후과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5월 27일

평양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무지막지한 군사적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이 5월 27일 우리측 서남해상에 불법침입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중에 있던 아군 해군 련락선을 정조준하여 40㎜기관포사격을 해대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섭게 격노시키고있다.

극도의 대결광기에 들떠 포사격까지 해댄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자는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보복열기가 하늘끝에 치닫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괴뢰군부깡패들은 이날 이른새벽 5시 53분부터 수많은 무장함선들을 우리측 해상수역에 들이밀어 도발의 기회를 노리던중 부업선을 예인하고 들어오는 아군 해군 련락선에 대해 아무러한 사전경고도 없이 40㎜기관포를 마구 란사해댔다.

단 한문의 포도 장비하지 않은 련락선을 대상으로 감행된 이번 군사적망동은 철두철미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계획적인 흉계에 따른것이다.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해상침범과 무모한 포사격으로 우리 군대의 자위적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의 화약고로 공인되여있는 서해열점수역의 정세를 최대로 악화시킨 다음 반동여용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발》과 《위협》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그릇된 여론을 유포시켜 북남관계의 대화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려는것이 도발자들의 악랄한 흉심이다.

이번 군사적도발이 감행되기 바쁘게 괴뢰군부가 수원공군기지에 있는 전투비행단에 비상출격대기태세를 지시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폭발전야의 최대긴장국면에로 치닫게 하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북남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의 원칙적인 제안에 호응해나올 대신 말도 안되는 《선 비핵화》주장을 내대면서 무작정 거부해나서고있는가 하면 북남대화와 협상을 지지하는 민심의 이목을 돌려보려고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서해열점수역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군사적도발행위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대해서는 애당초 꿈도 꾸지 않고 오직 동족대결과 북침야망에만 환장이 된 철저한 매국반역의 무리, 호전광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감히 괴뢰군부깡패들을 내몰아 도발적인 선불질을 해대게 한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통첩장을 보낸다.

첫째, 괴뢰군부깡패들을 무모한 군사적도발에로 부추긴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들은 온 겨레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

이번 군사적도발은 몇몇 남조선군부깡패들의 개별적망동이 아니라 조성되고있는 대화분위기를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유지하는것으로 최악의 《국정》위기를 수습해보려는 청와대의 계획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예민한 열점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정세를 폭발전야에로 몰아가기 위해 이번 군사적도발을 고안해내고 실행시킨 배후조종자들은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처형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둘째,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열점수역에서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0.001㎜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함정들에 대하여 경고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것이다.

우리의 선의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의 진정한 대화요구에 해상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무모한 군사적대결로 맞서고 우리의 긴장해소노력에는 위협천만한 북침전쟁소동으로 전면대응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정의로운 대화노력에 무모한 군사적대결로 대답한 이러한 도발행위로 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맞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자위적인 보복타격에 도전해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련속적인 대응타격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날카롭게 지켜볼것이다.

앞으로의 사태발전은 남조선당국의 차후행동에 달려있다.

주체105(2016)년 5월 28일

평양

수도건설력사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 영원히 빛나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55돐에 즈음하여

《나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혁명전사의 한사람입니다》

이 땅의 주인들이 시대의 롱마, 만리마를 타고 번개친다.

당의 부름따라 전속으로 내달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모습!

사랑하는 우리 평양에만도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한해가 다르게 치솟는 거리들은 그 얼마인가. 넓고 시원하게 쭉쭉 뻗어간 도로를 따라 우리는 발목이 시도록 수도의 거리들을 걷는다.

우리의 눈앞에 룡성도로가 다가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웅자가 빛나고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이 지척에 솟아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킬 려명거리와 잇닿아있는 룡성도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는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입니다.》

이느덧 55년세월이 흘렀다.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에게 위대한 당이 제시한 가장 웅대한 혁명의 목표를 어떻게 결사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새겨주며 빛나고있다.

력사적인 첫삽, 줄곧 메신 목고채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는 당 제4차대회를 맞으며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리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공사였다.

하지만 그때 도로확장공사는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쳐 힘있게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이 공사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참가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시면서 자신께서도 공사에 참가하실 의향을 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만족해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때에도 종합대학학생들이 한몫하였다고, 청년대학생들이 수도건설에 떨쳐나서면 들끓는 현실속에서 많이 배울수 있고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니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사에 나갈 전투원들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급일군들에게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혁명전사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 투철한 신념과 의지는 공사 전기간 모든 건설자들과 대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로 맥동쳤다.

주체50(1961)년 5월 15일 이른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수한 회색혼방직작업복을 입으시고 남먼저 공사장에 나오시였다.

공사지휘부에 먼저 들리시여 일군들로부터 공사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를 당 제4차대회전으로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사가 어렵고 방대하지만 일군들이 작업조직을 잘하고 작업조건을 잘 보장하며 지원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든지 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공사를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자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시였다.

그이의 안광은 예지로 빛나고있었다.

순간에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공사를 타개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안목은 얼마나 비범한것이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환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는 의지는 또 얼마나 확고한것인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필기모임을 끝마치고 사기충천한 대학생들에게 오늘은 정법한 날이면서도 의의가 큰 날이라고 하시면서 력사적인 첫삽을 뜨시였다.

그 첫삽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것이 애국의 최고표현이라는 신념이 깊이 심어지게 되였다.

어느날 공사장에 《녀성목고대장》이라는 속보가 나붙었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녀성목고대장을 만나시여 건강을 념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녀대학생은 자기들은 사실 이깨가 무어오르고 피부가 벗겨지면서도 계속 목고채를 메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힘을 얻게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웃음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목고를 메고 달릴 때는 몰라도 지녁에 자리에 누우면 어깨가 쓰리고 아프다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당대회전으로 룡성도로공사를 빨리 끝낼수 있겠는가고 늘 심려하시는 수령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음날에는 질통보다 2배이상의 능률을 내는 이 목고채를 다시 메게 된다고 하시였다.

언제나 공사의 앞장에서 달리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은 대학생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에게 수령의 가르치심을 받드는 전사의 자세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새겨주었다.

붉은기정신 맥박치는 혁명의 전투장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는 언제나 붉은기가 세차게 나붓꼈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진감하였다.

당시 《평양신문》은 《민주수도주변에 로장된 새 동로가 뻗어나간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하였다.

《지금 장산거리로부터 룡성사이에 일직선으로 현대적인 대동로를 새로 건설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지난 5월 15일부터 룡성행도로건설에 떨쳐나섰다. 그들이 맡은 일은 어려운 공사이다.》

첫날부터 기발들을 현장의 여러곳에 꽂아놓아 전투적분위기를 돋구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장 어디에서나 이 기발만 보면 새 힘이 날것이라고 하시면서 굴착기꼭대기에도 붉은기를 휘날리게 하시여 공사장에 붉은기정신이 맥박치게 하시였다.

공사초기 초급일군들은 속보나 몇장 써붙이고 경쟁도표나 올리는것으로 정치사업을 대치하고있었다.

실태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대정치부 일군들에게 정치사업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중요한것은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의도를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고 특히 대중의 자각적인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상이 빨동되고 열정에 불타니 무서울것이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공사도중 뜻밖의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혁명가요 《적기가》와 《유격대행진곡》이 공사장에 울려퍼지게 하시여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우리 장군님.

어느날 현장방송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장방송에서 울리는 노래는 진격나팔소리와 같이 힘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의 분위기에 맞는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노래를 많이 내보내야 청년건설자들이 목고를 메고 달려도 힘든줄 모르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도 생기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전투소보발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온 건설장에 널리 일반화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총화를 앞둔 때 그이를 보신 소대에서는 기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작업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단연 첫자리를 내다보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린접소대가 어려운 공사구간을 맡아 애쓰지만 실적이 높지 못한데 대하여 소대원들에게 알려주시며 우리 소대의 불도젤을 거기에 보내여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시였다.

설득력있는 그이의 이야기에 마침내 감동된 소대원들은 불도젤을 린접소대에 보내주었고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은 《경쟁대상을 돌자!》는 구호를 들고 집중적인 정치사업을 펼쳤다. 위력한 사상공세앞에 온 공사장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차넘치였으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어찌 그뿐이랴.

청년들이 있는 곳에는 노래와 춤이 있고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대별예술소품공연과 군중무용보급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시고 휴식시간에는 몸소 오락회에도 참석하시여 청년건설자들과 한데 어울려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신 우리 장군님의 손길이 있어 건설장은 그대로 붉은기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혁명의 전투장으로 되였다.

정깊은 부름에 비낀 인민적풍모

《…이 혁명사적지는 친애하는 지도자각하께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여주는 인민의 진정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참판을 통하여 인민에 대한 지도자각하의 사랑과 그이에 대한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았던 한 외국인사가 토로한 진정이다.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걸출한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자질과 풍모가 집중적으로 발현된 력사적인 시기였다. 하다면 그 외국인사는 우리 장군님의 친솔위인상가운데서도 어찌하여 인민판과 인민성, 인민적풍모에 무한히 끌리여 끝없는 찬탄과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였던가.

어느날 땅속에 묻혀있는 과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버리려고 하는 대학생건설자들을 보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이 과철이 보잘것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것으로 된다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앞장에 서시여 과철을 수매소에 날라가시였다.

수매소주인의 협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은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수매소안에는 정말 없는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갖가지 고물들이 쌓여있었다. 하나하나 선별하여 가려놓은 그 고물들은 수매소주인의 깐진 마음과 일본새를 말하여주고있었다.

하지만 수매일을 두고 어느 누가 애국적소행이라 일러줄적 있었던가.

수매소주인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처럼 훌륭한 일로 평가될줄은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잠시후 수매사업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에는 수매원들을 보고 《고물상》이라고 하였지만 오늘은 《보물상》이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그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정이 담긴 그 교시를 곱씹어 외워보는 수매소주인도 대학생들도 뜨거운 격정속에 그이를 우러렀다.

우리 수령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 이야기는 이 나날 건설자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얼마나 정깊은 이야기들을 남기였던가.

한번은 공사장가까이에서 살고있는 한 할아버지의 집에서 꽃밭도 손질하고 울밑의 도랑도 쳐주던 대학생들이 큰돌을 파내다가 그만 삽자루를 부러뜨리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삽자루를 새것으로 바꿔맞추어드리라고 하시였다.

공구창고로 달려온 한 학생이 새 삽자루를 갈아맞춰가지고 돌아서려고 할 때 그를 멈춰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살펴보시고 땅을 파보기도 하시며 삽자루가 드놀지 않게 손질하신 다음 손칼로 삽자루를 다스리고 또 다스리시였다.

다듬어진 삽자루를 돌려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아무리 새것이라고 해도 할아버지의 손때묻은 삽자루에 비기지는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큰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결코 크고작은것이 따로 있을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 해도 인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장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담아 해야 한다. 우리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룡사 전기간 인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깊이 마음쓰신것이리라.

밤에 말과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살림집들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깨여날수 있다고 하시며 작업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말과를 낮에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때에도, 굴착기연유가 떨어져 전화를 거시려 찾으신 장산려관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언제나 인민앞에 겸손하며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살도록 깨우쳐주실 때에도, 공사장부근의 상점에 들리시여 간장과 된장의 맛도 보시고 그 공급정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지 않았던가.

인민사랑의 하많은 일화들속에 어려온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신 위대한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습이.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를 총화하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였을 때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고, …

도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대로 훌륭히 확장되였다.

더없이 소중한 력사의 추억을 불러오는 룡성도로에 우리는 서있다. 이곳에서 안겨드는것이 어찌 력사만이라 하랴. 성스러운 그 력사우에 약동하는 젊음과 억센 기상에 넘친 사랑하는 우리 평양의 현재가 펼쳐져있고 인민의 꿈과 리상 꽃펴나 모든 영광 맞이할 우리 조국의 래일이 빛발치고있다.

그렇다. 이 땅의 모든 길들은 평양으로 통한다.

우리 격정에 넘쳐 감히 말하고저 한다.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 우리 민족의 장성부흥에로 가는 대통로는 바로 룡성도로와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웅대한 구상을 결사관철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인 충정심이 굳건한 기반을 이루고 그이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건설자들과 청년들,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 시원스럽게 쭉 뻗어나간 룡성도로,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대통로를 이 길에서 본다.

이 땅의 모든 승리와 번영의 직선주로도 이 길에서 뻗어갔고 무궁한 주체조선의 앞날도 이 길따라 열리기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금분

절세위인의 숭고한 조국애를 전하는 혁명사적물

장산혁명사적지에 전시된 사적물들중에는 사연깊은 품급도 있다.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의 나날 몸소 품급을 타시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를 부르시였다.

노래는 이곳을 찾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오늘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혁명적인 노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도로확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주체50(1961)년 5월 어느날이였다.

점심시간에 공사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함께 공사장가까이에 있는 어느 한 유치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품급이 있는것을 보시고 그앞에 다가서시였다.

전반우에 손을 얹으신채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님의 안녕을 축복하는 노래를 지어부른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추억에 잠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품급을 타시며 명작 《축복의 노래》는 참작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러서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노래를 불러볼수록 대학생들의 생각은 깊어지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여 조선을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진리를 심오한 사상으로 새겨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세대가 바뀌고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이 땅우에 솟는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오늘도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더불어 공사장에 빛발치던 그 숭고한 뜻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이 노래를 영원히 높이 부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려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축복의 노래》의 영원한 메아리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였다.

부드럽고 유순한 선률을 타고 울리는 노래는 들을수록 더 듣고싶은 심정을 불러일으켰다.

웅심깊고 절절한 노래에 감동된 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열렬한 청을 드려 노래를 배웠다.

노래를 다 배우고나서 노래제목을 알고싶다고 말씀드리는 대학생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 노래의 제목을 달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노래의 제목을 꼭 달아야 한다면 《축복의 노래》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가 창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노래한 가사의 구절구절은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험난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 더욱 번영할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안녕하실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축원의 마음을 소박하고도 진실한 형상으로 절절하게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부르면부를수록 친근감을 주는 서정적인 노래는 조국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라는 숭엄한 사회주의진실에 참가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이번 공사에서 본때를 보일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고동치던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지금도 들리여오는듯싶다.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영민

인민의 아들,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은 인민의 심장에 새겨지는 법이다.

얼마전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은 우리는 사적교양실의 한 사적물앞에서 그에 대하여 깊이 느끼게 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공사장에 나온 한 할머니에게 몸소 석탄을 담아주시였던 바께쯔와 삽.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날에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사적물이였다.

한줌의 석탄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의 마음을 애국심으로 헤아려주신 친근한 어버이의 그 모습,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소중한 마음을 대학생들에게 심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슴배여있는 사연깊은 사적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있던 주체50(1961)년 5월 어느날이였다.

작업의 쉼참에 공사장을 돌아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오군 하는 석탄을 담아가려고 온 할머니를 친히 만나시였다.

집에 석탄이 떨어져 나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우리 장군님을 알아뵙지 못한 할머니는 그런것이 아니라 석탄이 땅에 묻히는것이 아까와 담아가려 한다고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할머니말씀이 옳다고, 비록 많지 않은 석탄이지만 그대로 땅에 묻어버릴수 없다고, 이런 점에서도 인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줌의 석탄이라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의 마음을 소중히 안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굴착기를 동원하여 석탄을 안전한 장소에 무져놓아 인민들이 마음놓고 가져갈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석탄무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할머니에게 이제는 마음놓고 퍼가도 된다고 하시면서 몸소 삽을 드시고 바께쯔에 석탄을 한삽 또 한삽 정히 골라 담아주시였다.

그토록 정이 깊으시고 살틀하게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그 모습이 어찌 그 할머니 혼자의 심장에만 새겨졌으랴.

그때로부터 55년세월이 흐른 오늘날 인민이 룡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을 회억할 때면 우리 장군님께서 삽과 바께쯔를 드셨던 화폭을 그려보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리라.

력사의 그날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에 끌린 할머니는 공사장에 우리 수령님의 자제분께서도 나오셨다는데 한번 꼭 만나뵈왔으면 한다는 소원도 무람없이 말씀드리였다.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정 소원이라면 앞으로 꼭 만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석탄바께쯔를 드시고 비탈진 둔덕으로 오르시였다.

뒤늦게야 그토록 정다움게 대해주시던분이 우리 장군님이심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둔덕에서 바래우고계시는 그이께로 급히 되돌아섰다. 할머니의 두볼로 격정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의 두손을 감싸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할머니, 벌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습니까라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

정법한 한 할머니에게 하신 그 소박한 교시에 인민의 아들로 한생을 빛내이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항일의 나날 한 농가에 들리시여 나무를 패시며 험한 일을 하신다고 만류하는 한 로인에게 사명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 모습그대로였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가 사연깊은 사적물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인민의 아들, 인민의 어버이로 위대한 한평생을 불같이 사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는것이다.

정법한 한 생명을 위해 사랑의 특별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대양을 헤가르던 대형무역선이 항로를 바꾸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전고미문의 구제전투를 벌리도록 대책을 취해주시고 몸소 지휘하시였다는 사랑의 이야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인민을 찾아 떠나시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위대한 장군님 수놓으신 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전설같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을 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사랑들이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그 행복을 꽃피우고 지켜주시려 온넋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부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채히성

사연깊은 사적건물앞에서

오늘도 장산혁명사적지의 이 집을 청년대학생들이 참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0(1961)년 5월과 6월에 어러차례 찾으시고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사연깊은 사적건물이다.

공사장가까이에 있는 이 집에 군인들의 숙소를 마련해주시고 점소한 식사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의 식생활과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돌보아주신 우리 장군님.

인민군군인들이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인민들과 같이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이번 공사에서 본때를 보일데 대하여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고동치던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지금도 들리여오는듯싶다.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영민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관철에서 보여준 훌륭한 기풍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장 전경선동무의 사업을 놓고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해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인 안주공업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킨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장 전경선동무의 사업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어떻게 받들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자기 단위에서 남먼저 꽃피워가려는 당일군들의 지향은 한결같다. 그런데 왜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위가 있는가.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때문이다.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관점을 바로잡아준 전경선동무의 사업을 놓고보자.

두해전 4월 그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안주공업대학을 번듯하게 건설할것을 발기했을 때였다.

론의가 분분했다. 문제로 된것은 이 사업에 낯을 들려야 할 일부 일군들이 기업소의 형편을 운운하면서 선뜻 뛰여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사실 안주공업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은 당의 의도와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전경선동무는 안주공업대학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리는것은 단순히 건물을 일떠세우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흥의 오늘만이 아닌 래일과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제라는 주견을 세웠다. 그의 이런 관점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사실 자동화과장 박금석, 생필직장 직장장 명룡호동무를 비롯하여 무연탄가스화공정확립에서 중추적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안주공업대학출신들이였다.

전경선동무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충정으로 받들자면 자체의 인재력량을 더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러자면 뭐니뭐니해도 대학을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야 한다고 보았던것이다.

하지만 그때 전경선동무가 여러날동안 기업소의 설계일군들은 물론 대학일군들과 함께 구내를 밟으며 부지를 확정하고 사회주의강국의 대문은 과학기술로 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축형식을 열쇠모양으로 독특하게 설계할 구상을 무르익혔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명밖에 안되였다.

안주공업대학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전경선동무는 그후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물론 기업소형편을 생각하는 동무들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타산만 앞세운다면 언제 가도 대학의 면모를 일신시킬수 없습니다. 남흥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가 바로 이 대학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기업소가 허리띠를 조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멋들어지게 건설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그의 말은 대학건설을 이미 있던 건물을 개건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일군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한 그는 현장협의회만도 50차례나 하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무렵 전경선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교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킬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천방도들이 명시된 로작을 불멸의 기치로 받아안은 그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관철에서 선구자가 될 결심을 안고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출발진지에 자신을 세웠다. 교구비품이 요구될 때에는 설계를 직접 도맡아 완성하고 천리길이 되는 함흥목재가공공장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현지에 당일군을 파견하여 그 추진정형을 매일과 같이 알아보면서 지휘해나갔다.

기업소에 일감이 아무리 많고 자금이 긴장해도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대학건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건설장을 찾았던 전경선동무는 시공일군들이 계단란간을 일반철판으로 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기업소의 긴장한 자금사정을 생각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것을 교육사업을 제일처럼 여기지 않고 홀시하는 일군들의 관점문제로 보고 되게 문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대학건설에서 제기되는 대상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체계가 세워졌다. 그후 계단란간이 불수강으로 특색있게 시공되였고 교사바닥이 시원하고 안온한감을 주는 에록시수지철감으로 도장되였는가 하면 1층홀 정면벽체가 고급석재들로 다시 시공되였다.

전경선동무의 교육중시기풍을 보여주는 이런 실례가 있다.

70일전투로 온 기업소가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 3월 암모니아직장에 나갔던 그는 몇명의 교원들이 강의가 끝난 후 현장에 나온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는 다짜고짜로 그들의 등을 대학으로 떠밀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교원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후부터 대학교원들이 교육사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특별조치가 취해졌다.

규모가 큰 련합기업소의 당사업을 맡아보는 전경선동무처럼 바쁜 사람은 없다. 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의 개학모임과 졸업식에만은 번지지 않고 참가했다.

지난해졸업식때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박천군 단산리와 운전군 관해리 등 기업소의 부업지를 돌아보겠다고 길을 떠난 그가 졸업식장에 나타났던것이다.

《하마트면 늦을번 했소.》

끼니마저 건너뛰며 수백리길을 달려온 그를 보며 교직원, 학생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는 전경선동무의 이런 관점과 일본새에 의하여 공사를 시작한지 1년만에 500석종합강의실, 2개의 콤퓨터실습실과 전자도서실, 10개의 사무실 등 교육에 필요한 방들이 특색있게 꾸려졌다. 또한 25개의 교실에 랭온풍기가 설치되고 50여대의 콤퓨터와 20여대의 액정텔레비존, 1대의 증폭기 등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윽히 갖추어지고 연건축면적이 4 000여㎡로 된 4층교사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도록 관점을 바로세워준것이 안주공업대학을 교육사업의 정보화의 본보기로 되게 한 근본비결이였다.

거목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자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사명에 맞게 교원들의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교수참관과 교수경연, 경험토론회에 직접 참가하면서 매 과목별교원들의 실력상태를 검토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데 대한 과제를 주었으며 그 집행정형을 알아보면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화력발전소와 기업소사이의 증기판망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분공을 받은 대학의 교원들은 이것을 실천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실천실기능력을 겸비한 교원들로 준비되였다.

지난 시기 이곳 교원들은 지하자원개발추공시약 6종을 국산화하여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녀왔다.

70일전투기간에도 모든 교원들이 자기 맡은 과목의 교수안을 전자교수안으로 완성하였다.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2명의 박사, 9명의 부교수, 석사와 9명의 석사가 배출되였다. 또한 많은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가 되였다.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들로 키우는데서 교육환경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교육환경을 꾸려주기 위한 사업을 과제를 주고 알아보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갔다.

학생들이 모든 분야의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며 일감을 찾아나갔다. 어떤 날에는 밤을 밝혀가며 찾아낸 화학, 기계, 전기를 비롯한 전공지식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를 안고 대학에 나와 교원들을 놀래웠다.

이것이 첨부되여 교실과 복도들에 교육직관관 150점이 제시되게 되였다.

전경선동무는 또한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서 실험실습을 매우 중시했다.

학생들의 실험실습정형을 눈앞이보고 부족되는것이 있을세라 앞질러가며 풀어주는 그의 사업기풍에 의해 2전기직장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실이 따로 꾸려졌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해 이곳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합심하여 암모니아저장용뿔탕크준위조종을 콤퓨터화하여 도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한 사실, 동기발전기를 동기조상기로 운전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과학기술상과 등록증을 받은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모든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당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하여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대학에 원격교육체계를 세워 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이게 했다.

오늘 남흥에는 안주공업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현재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무려 1 500여명이나 된다.

거목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당책임일군이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가 실천형의 인재를 키워내게 한것, 바로 여기에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남흥이 비약하게 된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금방석에 앉히자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내세우자는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다.

전경선동무는 교원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이 맡겨준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 섰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교단을 지켜나가는 참된 교육전사가 되도록 떠밀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보았다. 그는 교원들의 얼굴빛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감을 찾을줄 아는 일군이다.

어느날 콤퓨터강좌에 나갔던 전경선동무는 한 교원의 얼굴에 그늘이 진것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그는 기업소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출근하고있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얼굴은 늘쌍 밝지 못하였다. 이때에도 그는 교원의 가정에 들려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아빠트에 입사하게 하여 그와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여나게 하였다. 고향이 문덕군인 어느 한 교원이 가족들과 떨어져 함숙에서 생활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에도 기업소에서 건설한 새 집을 배정해주어 본인과 가족들의 가슴을 울리였었다.

전경선동무의 뜨거운 인정미를 보여주는 이런 실례도 있다.

몇해전 기계공학강좌 교원인 장철환동무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게 된 전경선동무는 지체없이 그를 시인민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정형을 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주어 건강한 몸으로 교단에 설수 있게 해주었다.

교직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이것은 그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올해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기업소에서 판리하던 1 300㎡로 된 태양열남새온실을 대학에 넘겨줄데 대한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였다. 이미 새로 건설한 대학건물의 지붕을 리용하여 만들어놓은 1 000㎡의 태양열남새온실에서 먹을 보기 시작했고 축산토대까지 그른하게 갖추어놓았는데 그것만 판리하자고 해도 힘들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런 그들에게 전경선동무는 말했다.

《우리가 교직원들을 위해 대학에 후방기지를 따로 꾸려놓은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자면 아직 멀었다고 보오.》

이렇게 되여 기업소에서 판리하던 큰 규모의 남새온실이 대학에 이관되였다. 교직원들에게 땔감과 후방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체계가 섰다.

또한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에서 실적이 높은 공로있는 교원들이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똑같이 우대물자를 공급받게 되였다. 그리고 교원들이 매일 영양제식사를 보장받고있다.

안주공업대학의 교육자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어 그들이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의 긍지를 안고 교육사업에 전념하게 한것, 이것이 남흥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받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 또 하나의 비결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구상을 받들고 안주공업대학을 훌륭히 건설하고 잘 꾸려준 그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모든 당책임일군들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관철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장 전경선동무가 보여준것처럼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겨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참신한 총화방법과 그 실효

동신군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수단들도 적극 현대화하며 전자대매체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교양자료들도 사상사업에 널리 리용하여야 합니다.》

총화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여 그 실효를 높이는 사업은 중요하다. 동신군당위원회에서 70일전투기간에 진행한 주총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전에 군급기관 일군들이 모여 진행하는 주총화에서는 이룩된 성과들이 통보되고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군당위원회는 주총화를 보여주기를 위주로 하는 총화로 전환시켰다. 그것이 바로 록화편집물을 통한 총화형식이다.

그러면 록화편집물을 통한 총화의 실효가 얼마나 큰가를 보기로 하자.

70일전투 첫 주총화가 진행되던 날이였다. 총화모임시작을 선포한 군당책임일군이 주석단에서 내려와 관람석에 앉았다. 처음 보는 일이어서 군급기관 일군들은 놀라와했다. 영사막이 내리워지고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대상건설정형을 보여주는 록화편집물이 방영되였다. 은덕원개건보수, 명문천에 다리건설, 옴지구에서의 자연호흡식수도화공사 등 10여개 중점대상들의 건설 및 보수정형이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과 함께 화면에 펼쳐졌다. 방영시간은 기껏해서 20분안팎이였다. 그러나 혁명가요와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해설이 안받침된 록화편집물에 대한 일군들의 반향은 대단했다. 특히 편집물의 마감부분에 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낸 단위들과 로력혁신자들,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이름과 사진소개를 한것은 그 형식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감화력이 컸다.

지난 시기같으면 군의 실태를 제눈으로 직접 보자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앉은자리에서 손금보듯 알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

주총화는 군급기관 일군들이 70일전투기간에 어떻게 살며 일하고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로 되였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사이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촉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록화편집물을 통한 총화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지난 시기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열흘에 한번씩 관리위원회와 작업반들에 모여서 총화를 진행하군 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군당위원회는 협동농장당조직들에 매주 새로 제작한 록화편집물을 내려보내주어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되여 외진 산골짜기에서 일하는 방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록화편집물을 통하여 군적인 70일전투목표와 수행정형, 전투분위기, 근로자들의 투쟁모습, 혁신의 새 소식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자기를 비추어보게 되였다.

편집물을 통해 다리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본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나와 자신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왔다.

온 군이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한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속에 명문천에 콩크리트다리가 일떠서고 10여개의 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환풍의 기쁨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창조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주총화형식과 방법을 개선한 군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지금 군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드높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어린 거룩재벌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애국의 마음안고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배천군 수원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모잠비끄해방전선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엘리쎄우 죠아낌 마차바룸비시를 단장으로 하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최룡해동지는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과 인민이 당위원장인 필리페 자씬뚜 뉴씨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모잠비끄인민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위업에 물심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두 나라 관계발전에 굳건한 관심을 돌리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엘리쎄우 죠아낌 마차바룸비시는 대표단을 친절히 맞이하고 환대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최류기간 조선의 선대수령들께서 혁명과 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조선인민이 자기 령도자께 바치는 충정의 마음을 잘 알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고 령도하여오신 혁명위업이 꿋꿋이 계승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깊이 감탄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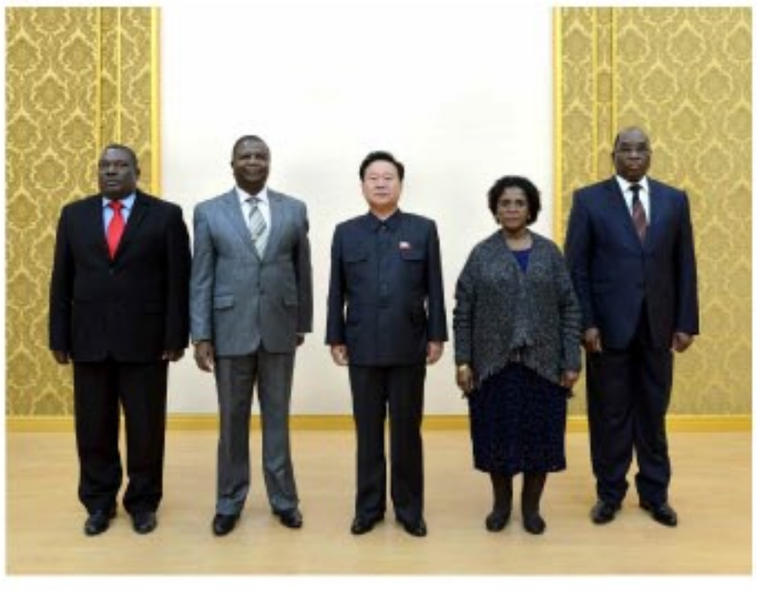
그는 조선방문기간 배운 모든것을 필리페 자씬뚜 뉴씨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의 앞으로의 활동과 모잠비끄인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적극 구현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두 당, 두 나라는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고있다고 하면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은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그는 모잠비끄인민이 진심으로 따르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박근팡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농기계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앞에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워야 할 무겁고도 혁명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위대한 주체농법을 창시해주시고 그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을 관리할수 있도록 종합적기계화실현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으며 앞으로 그 발전전망은 더욱 락관적이다.

그러면 기계화비중이란 무엇이며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기계화비중에 대하여 옳바로 리해하자면 농촌경리의 기계화발전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인식부터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 대한 평가는 량적평가와 질적평가로 구분한다.

량적평가지표에는 기계화비중, 기계화공정비률, 기계화수준, 기계화기여률 등이 있다. 기계화공정비률은 농영농공정가운데서 기계화한 공정의 백분률로 규정하는데 이 지표는 기계화도입범위만을 표시할뿐 기계화정도의 내용은 반영하지 못한다.

기계화비중이라고 할 때 인력과 축력으로 영농작업을 수행하는데 소비되는 총로력공수에 대한 기계화하여 절약된 로력공수의 백분률을 말한다.

실례로 어떤 영농작업을 인력과 축력으로 수행할 때 300공수가 들었다고 하자. 이 영농작업을 기계화를 실현하여 90공수로 수행했다면 210공수가 절약된것으로 된다. 이때의 기계화비중은 70%로 된다.

기계화비중은 기계화수준, 기계화기여률, 농기계현대화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본지표라고 할수 있다.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기계현대화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기계현대화는 작업질, 성능질, 기술봉사질을 높여 세계적수준의 농기계들을 개발완성하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작업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성능을 최대로 높여 더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 영농공정의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들의 지능화, 자동조종수준을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영농공정기술을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갱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농업생산물에서 재배기술과 기계화의 몫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보고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영농공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적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알곡증수몫에서 종자와 비료가 차지하는 몫이 30%, 관개가 차지하는 몫이 30%, 기계화가 차지하는 몫이 40%라고 한다.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영농공정별, 시기별 최대로력곡선을 낮추어 고르롭게 하기 위한 기계화공정체계를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즉 씨뿌리기, 모내기, 가을걷이시기에 집중적으로 로력부족이 올라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농기계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농업성과 도, 시, 군 농업지도단위들과 협동농장들에서 기계화비중에 대한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도달목표를 옳게 선정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농기계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은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다용도화, 종합화,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된 우리 식의 농기계들을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으로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 우리가 만든 현대적이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해나가야 할것이다.

농업성 농기계연구소
교수 박사 박만성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백두산기슭에 나래치는 총공격전의 기상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만리마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사업총화보고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이 절사관철의 정신, 대담한 공격전으로 건설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철다리건설과 로반형성, 소구조물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차굴도갱과 피복전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전투목표를 일별, 공정별로 정확히 제시하고 비상히 앙양된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전투현장마다에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의 각 려단들에서는 주타격대상인 로반공사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철다리, 차굴, 웅벽공사를 옳세안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마다에서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송풍기, 가속기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각 려단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벌리고있다. 려단들에서는 방송선전, 직관선전, 강연선전 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들이대여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로반형성을 위한 흙쌓기, 흙깎기, 통나무생산을 비롯한 1단계 전투목표에 제시된 모든 지표별공사과제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려단에서는 이미 중토장2다리건설을 끝내고 수십개의 소구조물공사도 완공하였다.

평양시려단에서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위력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로반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였던 800m 습지대를 며칠만에 극복하고 로반 전구간을 하나로 잇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미 로반형성과 남포테다리건설 그리고 소구조물공사를 끝낸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당면한 전투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백두산으로 향한 철길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 결의에 충만된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떨치며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여 로반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놀라운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평강도려단에서는 지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정대, 함마, 망치를 비롯한 공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 금모가 큰 가림다리건설을 끝냈다.

함경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지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차굴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려단의 일군들은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평안북도려단에서는 세멘트와 발대목을 비롯한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 기둥콩크리트치기에 앞선 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보통 1년은 걸려야 할 방대한 포대1다리, 2다리건설과 소구조물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끝냈다.

자강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기계화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불리한 자연지형조건에 맞게 집중적인 발파를 들이대여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언땅을 파제끼며 수많은 갱정을 뚫고 발파대상의 특성에 맞게 장약형태와 장약량을 잘 타산하여 로반형성에 유리하게 발파를 진행함으로써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공심언제식웅벽건설방법과 물관설치에서의 급경사보장을 비롯한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가고있다.

황해남도, 량강도려단에서는 땅이 녹아내리는 계절에 맞게 로력과 기계화수단을 로반공사에 집중하면서 맹렬한 공격전으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사장적으로 로반, 차굴관통과 확장, 소구조물공사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당위원회들, 전국의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과 관련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워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뜨거운 지원의 마음이 백두산기슭의 철길건설장으로 끝없이 달려오고있다.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에 참가한 모든 돌격대원들은 지난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철길건설격전장마다에서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며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다.

황해남도려단에서

오솔길에 비낀 순결한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에 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혁명선렬들의 뜻이 어려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볼수 없습니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 황해남도려단에서 있은 일이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차굴입구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리고있던 때였다.

기관총련발사적소리같은 착암기소리, 지심을 울리며 메아리쳐가는 둔중한 발파소리…

그러던 어느날 심산계곡을 뒤흔들며 울리던 착암기소리가 툭 멎었다. 착암이 중지되였다.

혹시 굳은 암반이나 무른 감탕층과 맞다들린것이 아닌가?

누구나 의아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였다.

려단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사실 착암을 중지한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려단이 뚫어야 할 차굴가까이에는 혁명전적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착암을 들이대며 굴을 뚫다가는 혁명전적지로 가는 오솔길이 없어질수 있었던것이다.

그 오솔길은 항일전의 그 나날 보천보로 진격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철수할 때 리용한 통로였다.

전적지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메목다리를 놓고 암록강을 건넜던 장소며 두개의 경계초소자리 그리고 주력부대의 차후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대원들이 경계임무를 수행한 장소도 있었다.

암록강의 소연한 물소리에서도, 진달래 만발한 이름없는 바위츠렁에서도 조국으로 진군하였던 투사들의 높뛰는 숨결이 느껴지는것만 같아 마음이 울렁이게 하는 구시물동혁명전적지였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은 이른아침이면 그 오솔길을 따라 혁명전적지로 달려가 주변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항일의 추억을 불러주듯 달리던 렬차도 구시물동을 지나갈 때면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군 한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협의회는 계속되였다.

기차굴을 더 뚫고 확장하느라면 오솔길이 몇m나 잘릴것이 분명하였다.

오솔길을 그대로 보존할 방도는 없겠는가.

로반을 암록강기슭에 바싹 접근시켜 철길을 돌리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럴듯 한 생각이였지만 그렇게 하면 넓은철길의 허용곡선을 보장할수 없었다.

2대대 돌격대원들이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다.

혁명전적지의 오솔길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달리하여 차굴을 다시 뚫자는것이였다.

어렵고 힘든 그 과제를 자기들이 맡겠다는 대대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혁명전적지의 산발을 타고 쩌렁쩌렁 메아리쳤다.

사실 암질조건이 좋지 않은 이 지대에서 굴입구를 다시 잡고 차굴을 뚫는다는것은 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혁명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항일혁명선렬들의 뜻이 어려있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려단은 차굴입구를 다시 잡고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공사날자는 긴박하고 작업량은 배로 늘어났지만 이들은 힘든줄 몰랐다.

친금주고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 혁명전적지의 오솔길 하나도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순결한 넋과 충정의 구슬땀을 바친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대답은 오직 결사관철

불가능을 모르는 뜨거운 심장

《로반형성과 소구조물공사, 철다리건설 완성!》

《또다시 1등의 자리에!》

…

성, 중앙기관려단의 속보판에 나붙은 이런 힘있는 글발이 돌격대원들의 눈길을 끈다.

자연환경이 불리한 전투장에서 려단이 이렇듯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곳 려단의 4대대에서 있은 일이다.

삼지연지구에서 10월초에 첫눈이 내리면 다음해 4월까지 언땅이 채 녹지 않아 겨울철건설공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었다.

하지만 대대장 김철준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돌격대원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몸이 부서진대도 당조직의 결정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이 그들의 심장의 박동을 높뛰게 하였다.

눈이 쏟아져내리고 강추위가 들이닥쳤지만 대대장과 돌격대원들은 눈이 쌓일세라 련속 쳐내고 또 쳐내면서 로반공사를 밀고나갔다. 강추위를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녹이며 언땅을 파헤쳤고 한치한치 로반을 쌓아나갔다.

땅이 녹으면서 로반공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전구간에 이깔솔에서 솜새여나온 물이 흘러들어 진펄로 변하였다. 물펄반, 흙펄반으로 되여있는 지대에서 흙쌓기를 위해 불전기재를 들이밀면 차바퀴가 절반이상 진창속에 빠져들어가군 하였다.

하지만 4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대는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여 기어이 로반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이들만이 아니다.

대대장 김송학동무를 비롯한 1대대의 전투원들도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3대대를 비롯한 그 어느 대대에 가보아도 가슴뜨거운 영웅적위훈담을 들을수 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당이 맡겨준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관철할 불같은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잊지 못할 나흘낮, 사흘밤

총정의 70일전투마감을 며칠 앞둔 어느날 평양시려단의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철야전군의 분분초초를 위훈으로 수놓으며 려단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제꼈다. 하지만 지휘관들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이웃려단과 경제를 이룬 800m구간의 진펄지대때문이였다. 물전기재가 들어서기만 하면 다시 나오기 힘든 진펄을 들어내고 로반을 형성한다는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공사였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진펄을 극복한 다음 70일전투를 펏멧이 총화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이른아침에 돌격대원들은 전투에 진입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물전기재들의 발동소리에 숲이 통채로 흔들리는듯싶은 공사현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이였다.

진눈까비가 흩날리는 진펄에 육중한 물전기재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베목다리들이 놓이고 언땅을 까내는 함마질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리는 나지 않았다. 눈석이와 함께 진흙이 흘러들어 방금 파놓은 구간이 다시 수렁창으로 변했다.

하지만 누구도 손맥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숲한가운데를 꿰지르며 로반이 얼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반을 다지는데 막대한 량의 돌이 있어야 하였다. 화산재가 한벌 덮인 이 지방에서 돌을 얻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고장 주민들을 통해 돌원천지를 알게 된 돌격대원들은 지체없이 현지로 달려갔다. 그곳은 자동차가 들어갈수 없는 급경사지였다. 구간은 4km가량, 이번에도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끝내 1천여㎥의 돌들을 날라왔다.

나흘낮, 사흘밤!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이였지만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며 총정의 70일전투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펏멧이 총화지을수 있었다.

뜨거운 격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입니다.》

번쩍—

심장이 번쩍인 하늘이 갑자기 밝아졌다. 뢰성이 백두대지를 흔들었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 함경북도려단 려단장 리일수는 손목시계를 초조히 들여다보았다. 지금쯤이면 정치부장이 도착할 시간인데…

어제 아침 정치부장 현동일은 세멘트집중수송을 위해 긴급히 조직된 자동차편대를 책임지고 철길건설장에서 150리 떨어진 위연청년역에 나갔다.

출발을 앞두고 려단장과 정치부장사이에는 가벼운 말씨름이 벌어졌었다. 현동일이 위랑이 있는 리일수를 걱정하여 자기가 자동차편대와 함께 집중수송을 가겠다고 나선것이다.

《정치부장동무, 그러면 이 려단장이 뭐가 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야 피가 펄펄 끓는 젊은 혈기가 아닙니까.》

려단장은 정치부장이 웅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물러섰다. …

려단지휘부에서 시오리가량 올라가면 포태천 여울목이 있는데 봄장마가 터질 때면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군 하였다. 사람들은 그런대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여울을 건�“수 있지만 자동차들은 영낙없이 물속에 빠져들어 다른 차가 바줄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것을 보면 여울목에서 사달이 난것이 분명하였다.

병실에서 나온 리일수는 삽차운전수를 조용히 찾았다.

《차안에 쇠바줄이 있지. 나하구 여울목에 가자구.》

그무렵 현동일은 여울목에 빠진 선두차를 기슭에 밀어내느라 간난신고하고있었다.

깊은 밤의 고요속에 8대나 되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여울목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운전사들이 려단에 알리자고 하자 그는 굳이 만류하였다.

《그만두오. 종일 착암과 발파를 하고 지금쯤 침실에 들어왔겠는데.》

그리고는 물속에서 휘청거리며 선두차바퀴에 걸린 큰돌을 뽑아먼졌다. 이때였다. 발동소리가 멎고 어둠속에서 전지불빛이 점점 가까와졌다.

《동무들—》

리일수가 불쑥 나타났다.

《정치부장동무!》

《려단장동무도 종일 일을 했을텐데 쉬지 않고, 저녁식사는 했습니까?》

《정치부장동무생각에 밥술을 들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은 반가와 서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러면 어느날 이번에는 려단장이 운전사들과 함께 위연청년역에 나간 뒤 몸소나기가 쏟아졌다. 여울목이 더욱 깊어졌으리라는 생각에 현동일은 잠들수 없었다. 밤새 뒤척거렸다.

(지금쯤 수송대가 돌아섰겠는데. 아예 다리를 놓으면 어떨가. …)

그는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 대대장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 걸심을 터놓았다.

그의 말에 대대장은 롱감을 표시하였다.

《이왕이면 위연청년역에 나간 수송대가 돌아서기 전에 다리를 놓읍시다.》

대대장은 왜서인지 코마루가 찡해났다. 지휘관들의 미더운 모습과 함께 서로 아끼고 격려해주며 늘 공격전의 앞장에서 대오를 이끄는 려단장과 정치부장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였다.

아름드리통나무로 만든 다리가 개울을 가로질러 건너갔다.

그날 저녁 달리는 자동차편대의 맨 앞차 운전칸에 앉은 리일수는 여울목에 이르러 깜짝 놀랐다. 징검다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든든한 다리가 길게 놓여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게 하였다. 다리 저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지가랭이를 쥐여짜던 현동일이 리일수를 보자 웃으며 소리쳤다.

《이제는 마중나가는 일이 더는 없게 되였습니다.》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리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

이런 뜨거운 동지애가 있어 려단이 맡은 건설공사에서 그렇듯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이겠는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려단장은 고개를 들었다. 비구름이 밀려간 하늘에는 뭇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굽이치는 여울물소리도 여느때없이 정답게 들리는 밤이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7일 오병우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장과 박광혁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이 27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손님들은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이란대표단 성원 마그쓰드 알리나씨르자데는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주석께서는 나라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그들은 국제친선전람관, 과학기술전당, 관문점 등을 참관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9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상업성체육단 선수들의 교예체조검열경기가 진행된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대표단 귀국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근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력생산 정상화, 삼지연군에 공급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전기가 펑펑 생산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 삼지연군 인민들이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전력생산계획을 103%로 넘쳐 수행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기사장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발전기들의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중심을 두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1호, 2호, 3호발전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다지고 구조물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더 많은 물을 잡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발전소들의 생산공정과 시설물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함흥수리동력대학을 졸업하고 발전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2호발전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가건설감독성,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발전소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발전소의 전력생산통합조종체계를 카까운 시일에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전기가 펑펑 생산되여 삼지연군에 웃음꽃이 만발하고있다.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만부하로 돌고있다. 밤이면 백두산지구 체육촌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군문화회관, 배개봉국수집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황홀한 불야경을 펼쳐보이고있다.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독자의 편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입니다

대동강구역 문수3동 8인민반에 살고있는 최일화녀성과 그의 가정에서는 륙류영예군인인 저와 저의 가족을 10여년동안이나 친혈육처럼 돌봐주고있습니다.

10여년전 당시 동일군이였던 최일화녀성은 제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들과 함께 명절날, 기념일들과 저의 생일날이면 륙륙 저를 찾아와 축하해주군 하였습니다. 때없이 저의 집에 들려 건강상태와 살림살이형편을 세심히 알아보며 따뜻이 위해주기도 하고 텔레비존과 록화기, 영양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까지 안고와 저와 저의 안해의 눈시울을 적셔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올해 3월 제가 상처가 도져 몹시 앓고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았는지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과학대학에 다니는 최일화녀성의 아들 김고려학생이 저의 집을 찾아온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상에 들면 사람이 그립다고 제손을 꼭 잡고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병치료는 약절반, 마음절반이라고 하며 귀한 보약들과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내놓는 그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굽이 찌릿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저의 집을 찾아오던 그가 오늘까지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변심없이 우리 가정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것이였습니다.

한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껏 떠밀어주고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 그의 진정앞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습니다.

이런 청년대학생들이 오늘 우리 영예군인들의 친혈육이 되여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고있으니 저는 김고려동무와 같은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준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영예군인들을 아껴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강구역 문수1동 72인민반 영예군인 김광호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담화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력사적인 보고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해주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과 뜻이였으며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집대성되여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며 거족적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여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특히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과 아량에 의하여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에 놓여있었던 개성과 금강산지역이 6.15시대에 북남경제협력지대로 전환되고 민족공동의 재부를 창조해나가며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동적인 사변들도 펼쳐질수 있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겨레의 협력을 잇고 하늘길, 바다길로 북과 남이 서로 오가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외세에 빌붙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여달리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은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었던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길을 차단하고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취물들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조선반도에 또다시 불신과 대결의 먹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북남경제협력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되여 절망속에 허덕이고있는가 하면 민족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로력과 재부들이 동족대결에 소모되는 가슴아픈 현실이 지속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였더라면 북남관계는 오늘과 같이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지 않았을것이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을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반반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면서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에 매달리는것은 더이상 참을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칠 때 우리 민족은 능히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

온 겨레가 외세는 절대로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과 세계앞에 서약한 력사적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경제인들은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온 민족이 하나로 단합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민족최고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억센 힘으로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주체105(2016)년 5월 27일
평 양

미래에 대한 생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품성입니다.》

얼마전 평양대극장을 찾았던 우리는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관람하였다.

일제교형리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는 녀투사의 모습을 형상한 공연을 관람하고나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알게 되였다고.

너무나도 귀에 익은 말이였다. 하지만 공연이 남긴 깊은 여운속에 잠겨있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 례사로이 들리지 않았다.

신념으로 보는 미래, 철창속에 갇혀 두눈마저 잃은 최희숙동지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던 그 미래는 과연 무엇이였을가.

이런 생각에 잠기느라니 최희숙동지만이 아닌 수많은 녀투사들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안순화, 리재순, 김확실, 마국화, 박옥금…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싸워온 녀투사들이 자신처럼 믿어온 래일은 혁명이 승리한 그날에 받아안게 될 그 어떤 특전이나 만사람의 존경이 아니였다.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 남의 집처마밑에 넘겨두고온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이였고 눈보라치는 밀림속에서 한줌의 미시가루도 나누어들던 전우들의 모습이였다.

숙영의 그날 우등불가에서 떠나온 조국을 그리며 한뜸두뜸 수놓던 무궁화수예품이였다.

흔히 미래는 보이지 않는 먼 래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투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래일은 이처럼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주고 인간의 참된 삶을 떠올려준 어제였고 오늘이였다.

최희숙동지 역시 한줄기 빛도 볼수 없는 실명속에서 그려보았을것이다. 영원히 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안고 살라는 의미를 담아 금반지를 표창으로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영상, 《민생단》 혐의자의 루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자신을 한몸 내대고 구원해주신 김정숙동지의 그 모습을.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삶의 진리로 가득찬 나날에 녀투사는 혁명의 길에서 자신이 맞이할 인생의 영광을 그려보았으리라. 그것이 곧 신념이 되고 의지가 되였기에 최후의 순간에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라고 값높이 평가해주신 신념의 웨침—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항일의 투사들이 이 웨침과 더불어 혁명의 래일을 보았다면 오늘날 후대들은 백두산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자라난 투사들의 어제를 본다.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고 래일이 있는 법이다.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생의 나날을 심장에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미래를 주고 신념과 의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육체적생명을 부지하려고 모지름을 쓰는 배신자들에게는 멸망을 선고하며 도도히 흘러가는 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어져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초륜속에서 우리는 알았다. 혁명가가 그려보는 미래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다는것을.

당과 수령의 품에 안겨 인간의 참된 삶을 받아안고 혁명을 배운 어제와 오늘에서 찬란한 승리의 래일을 볼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미래를 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진짜배기혁명가라는것을.

본사기자 승철진

수도건설위원회 운수관리국 갈림길기동려단 전투원들

충정의 운행길에는 곡선이 없다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수도건설위원회 운수관리국 갈림길기동려단 전투원들이 충정의 운행길을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충정의 운행길에 기적과 혁신만을 아로새겨온 이들이다. 70일전투의 나날 하루 한량 더,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운전사들에게는 짧은 식사시간도 귀중하였다.

운행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공의 그날로 향한 직선주로만이 있다!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주창복, 김영남, 리명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운전사들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일했다.

어느날 맡은 과제를 끝내고 자동차를 정비하던 1대대 1소대장 림용철동무의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모레 한차만 더 있으면 오늘계획 150%는 문제없겠는데…》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건설자들이 하루일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며 안타까와 하는 말이였다. 즉시 자동차에 올라 발동을 걸 차비를 하는 그에게 여러 운전사들이 달려와 저마다 자기가 하겠다고 욕욕했다. 그러는 운전사들을 뒤에 남기고 림용철동무는 차를 내몰았다.

멀어져가는 자동차를 이윽토록 바라보는 운전사들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어려운 일감이 제기되면 주저없이 나서는 소대장, 언제인가는 다이야때문에 애를 먹고있는 한 운전사에게 자기가 건사했던 다이야를 가지고와 《힘껏 달려보자구.》 하고 말하여 운전사들을 감동시킨 그였다.

어느 한 대상건설에 동원된 운전사들의 승벽심도 대단했다. 최금철, 김철룡, 최영복동무를 비롯한 운전사들은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는 건설자들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운행길을 달리였다.

어느날 늦은저녁 3대대의 한 초급일군은 수도의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장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고있었다. 거기서는 광복지리건설때 본때를 보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전사가 된 남광철동무가 잠도 휴식도 잊고 물동수송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대대에서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여 다른 운전사와 교대시키기로 토의하였다. 그런데 건설장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찾아서야 초급일군은 건설자들속에 섞여 혼합작업을 하고있는 남광철동무를 보게 되였다. 삽을 잽싸게 놀리며 그가 하는 말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물동수송문제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며 초급일군은 가슴이 후더워오르는것을 느끼였다.

갈림길기동려단의 전투원들은 모두 이렇게 살며 일하였다.

자동차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탕을 받드는 마음에는 어제도 오늘도 절대로 곡선이 있을수 없다.

이것이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떨쳐나 운행길을 쉬임없이 달리고있는 려단전투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본사기자 현경철

우리의 손으로 더 밝고 행복할 래일을

북청군 토성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이른날 새벽 마을에서는 마가을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소방울소리가 울렸다.

토성천입구에 이르러 달구지를 멈춰세우던 박인실동무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래졌다. 크지 않은 돌무지들이 군데군데 쌓여있는것이 아닌가.

이른새벽 질통을 메고 돌재취에 나선 사람은 초급당위원장 고병창동무였다.

얼마후 그들은 토성천입에 나란히 앉았다.

《힘들지요?》

고병창동무의 물음에 박인실동무는 조용히 웃어보였다. 그의 땀젖은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며 고병창동무는 말을 이었다.

《판리위원장동무, 난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탕에서 나를 키워주었지요.…》

초급당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인실동무는 길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보았다.

평범한 농장원의 자식을 분조장, 작업반장, 판리위원장으로 키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하던 부모의 당부도, 군당위원회일군들과 마을사람들의 기대와 믿음도 다시금 가슴을 파고들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주어서…》

《우리 손을 맞잡고 우리 고장을 잘 꾸려봅시다.》

산마루에 두둥실 솟아오른 아침해가 그들의 온몸을 부드럽게 어루쓸었다.

온 농장이 토성천석축공사에 떨쳐나섰다.

그 공사를 위해 타고장에서 실어온 돌만 해도 수백차나 된다니 토성리사람들의 노력을 무엇에 비길수 있겠는가.

그해 농장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그 전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끝낸 다음 벼모내기도 한주일 먼저 시작하였다. 모내기가 한창이던 어느날 박인실동무는 한 작업반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반장동무, 이땅소, 군의 지원이 없이 농사를 제 지을것 같소?》

그러자 반장은 펄쩍 뛰였다.

《지원이라니요?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되는걸…정말 부끄럽습니다.》

작업반장의 말에 모두가 호응하였다.

농사도 농사이지만 사람들이 달라져가는것이 박인실동무는 무엇보다 기뻤다.

모내기가 끝나갈무렵 그의 발길은 자주 마을앞산으로 향해졌다.

판리위원장이 새땅을 찾아냈던 그 산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판리위원회앞마당에 큼직한 전망도가 나붙었다.

불수록 희한한 전망도를 이윽토록 바라보는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그래서 우리 판리위원장이 그 험한 앞산엘 계속 오르댔구만.》

《이 그림을 어느 화가의 솜씨에 비기겠소?!》

농장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와졌다.

몇해전 박인실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리소재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비록 단층전문밖에 지어본적이 없었지만 신심있게 떨쳐나 2층으로 된 문화회관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새로 건설한 문화회관에 음향설비를 조립하던 날 그 설비의 성능을 가늠해보느라 오랜 시간 회관의 여기저기를 오가며 박인실동무가 하던 말을 이 고장 사람들은 오늘도 외우고있다.

《이 설비는 문화정서생활뿐 아니라 사상사업에도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여 적당하면 된다는것은 낡은 사상이요.》

오늘 토성리를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리인의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였다.

아침저녁 마을을 한바퀴씩 돌며 주민들의 생활정형을 료해하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일과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이며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박인실동무는 집대문앞에 고개를 숙인채 오도카니 서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였다. 소학교학생인 그 애는 박인실동무를 보자 《위원장곤아버지!—》 하며 대뜸 달려와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리고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함흥시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그만 유희에 정신이 팔려 어머니의 속을 태우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털놓았다.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흥시의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유희인가를 상세히 묻고난 박인실동무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뇌이였다.

《이 곤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그로부터 얼마후 토성원앞에는 도시의 공원, 유원지에서나 볼수 있는 유희시설이 번듯하게 생겨나게 되였다.

리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미용실, 리발실에도, 마을의 야경을 보장하는 태양빛전지판들과 농장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수리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내는 수리기지에도 보다 큰 행복도, 더 밝은 미래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올해 농장에서 민족최대의 경사로 손꼽히는 문화정서생활뿐 아니라 사상사업에도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여 적당하면 된다는것은 낡은 사상이요.》

오늘 토성리를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리인의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였다.

아침저녁 마을을 한바퀴씩 돌며 주민들의 생활정형을 료해하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일과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이며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박인실동무는 집대문앞에 고개를 숙인채 오도카니 서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였다. 소학교학생인 그 애는 박인실동무를 보자 《위원장곤아버지!—》 하며 대뜸 달려와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리고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함흥시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그만 유희에 정신이 팔려 어머니의 속을 태우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털놓았다.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흥시의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유희인가를 상세히 묻고난 박인실동무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뇌이였다.

《이 곤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그로부터 얼마후 토성원앞에는 도시의 공원, 유원지에서나 볼수 있는 유희시설이 번듯하게 생겨나게 되였다.

리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미용실, 리발실에도, 마을의 야경을 보장하는 태양빛전지판들과 농장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수리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내는 수리기지에도 보다 큰 행복도, 더 밝은 미래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올해 농장에서 민족최대의 경사로 함흥시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그만 유희에 정신이 팔려 어머니의 속을 태우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털놓았다.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흥시의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유희인가를 상세히 묻고난 박인실동무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뇌이였다.

《이 곤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그로부터 얼마후 토성원앞에는 도시의 공원, 유원지에서나 볼수 있는 유희시설이 번듯하게 생겨나게 되였다.

리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미용실, 리발실에도, 마을의 야경을 보장하는 태양빛전지판들과 농장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수리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내는 수리기지에도 보다 큰 행복도, 더 밝은 미래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올해 농장에서 민족최대의 경사로 손꼽히는 문화정서생활뿐 아니라 사상사업에도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여 적당하면 된다는것은 낡은 사상이요.》

오늘 토성리를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리인의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였다.

아침저녁 마을을 한바퀴씩 돌며 주민들의 생활정형을 료해하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일과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이며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박인실동무는 집대문앞에 고개를 숙인채 오도카니 서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였다. 소학교학생인 그 애는 박인실동무를 보자 《위원장곤아버지!—》 하며 대뜸 달려와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리고는 울먹울먹한 목소리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에 깔린 음흉한 속심

미집권자 오바마가 일본의 히로시마행각에 나섰다. 미국의 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되는 히로시마행각이다.

력대로 미집권자의 히로시마행각은 여론의 론의거리로 되군 하였다. 일본당국은 그것을 간청하였으나 미국은 매번 랭담하게 거부하였다. 히로시마가 미국이 산생시킨 세계최초의 원자탄피해지역이라는 죄의식때문이 아니였다. 이곳에 미국대통령이 머리를 들이미는것이 핵범죄자의 사죄행각으로 될수 있고 나아가서 원자탄사용에 대한 미당국의 기존립장을 뒤집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오바마도 집권기간 이미 3차례나 일본을 행각하였지만 히로시마만은 외면하였다.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행각은 극히 이례적인것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미일사이의 흉정이 깔려있다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미집권자가 어떤 자세로 히로시마행각에 나섰는가 하는것은 미일관계의 흑막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한 원자탄투하가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고 미군병사들과 수백만명의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존할수 있게 됐다는것이 미행정부의 립장이다. 반면에 미국의 력사학자들은 원자탄투하가 도쿄정부의 항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쏘련의 대일전쟁개입으로 인한것이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대통령이였던 아이젠하워도 원자탄투하는 전쟁종결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한것은 저들이 제작한 핵무기의 성능시험을 하는것과 함께 대전종결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는것을 과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국이 일본땅에 투하한 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일대를 죽음의 지대로 만들어버렸으며 그 후유증은 오늘까지 가셔지지 않고있다. 미국은 원자탄사용국으로서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바마의 히로시마방문이 사죄를 위한 려행이 아니다.》라고 루차 강조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을 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태도이다.

지난 20일 주미 일본대사 사사에는 《나는 오바마가 원자탄투하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것을 문제시하고싶지는 않다.》고 뇌까렸다. 사사에의 발언은 사실상 일본정부의 립장을 대변한것이나 같다.

록도전문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가 공개한데 의하면 2009년에 오바마는 원자탄투하에 대해 일본인민들에게 공식 사죄할 예정이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무성은 오바마의 사과표명내용이 담겨진 공식서한을 일본에 발송하였다. 일본외무성 사무차관 야부나까 미또는 회답편지에서 사과가 《시기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일본정객들이 자기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운 가해자인 미국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낼 대신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기요 뭐요 하며 들이친것은 얼간이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번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이 원자탄피해자들과 그 령혼들에게 속죄하는 걸음이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여기에는 임기시작부터 내돌았던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이라는것을 또다시 력설하여 세계최악의 핵범죄자로서의 정체를 어떻게 하나 가리워보자는 흉심이 깔려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2009년 4월 오바마가 체스꼬 쁘라하의 군중들앞에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드는것은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임기중에 비록 그것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휘소리를 친것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인류가 그토록 념원하는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세치 허끝에 올린 덕으로 집권한지 1년도 못되여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집권기간은 백악관주인이 열심히 외워댄 《핵무기없는 세계》건설 구상이라는것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였다.

미국은 인류의 현대문명을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되돌려세울수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며 핵무기현대화에 미쳐날뛰고있다. 미국때문에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경쟁,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고 《핵군축》과 《비핵세계》타령을 늘어놓는 미국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망동에 국제사회가 침을 뱉고 단죄해나서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한 언론이 핵무기현대화에 착수하고 핵무기축감의지도 없는 오바마행정부는 핵전파방지를 위한 책임적인 사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혹평하였겠는가.

오바마행정부에는 분노한 세계민심을 달랠 새로운 광대극이 필요했다. 오바마가 수십년세월 백악관주인들이 고집해온 국가관례를 깨고 히로시마행각을 단행한것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이라는 기만극을 임기마지막까지 펼쳐놓자는 술책이다.

이번 행각에 앞서 미국의 주요언론들이 오바마가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실현을 위한 환건적인 안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대대적인 여론공세를 편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번에 오바마가 히로시마행각에 나선것은 재침을 추구하는 섬나라를 더욱 끌어당겨 저들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용이하게 리용하려는 타산도 놓여있다. 일본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 전쟁머슴군으로 세먹으려 하고있는 미국은 일본반동들의 군국화, 군사대국화를 부채질하고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켜 패망의 앙갚음을 해보려는 군국주의괴물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저들의 패권야망실현을 위해 지난 시기 개입하지 않던 아시아나라들의 복잡한 령토분쟁에까지 끼여들어 일본의 편역을 들어주고있는 미국인것만큼 오늘에 와서 집권자의 히로시마행각은 하수인을 길들이는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되는것이다.

일본이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이 그 무슨 《사변적인 일》이라도 되는듯이 소란을 피우는 리면에는 그들나름의 음흉한 속심이 있다. 그것은 원자탄피해상황을 세계에 극구 선전하여 일본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주자는것이다.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책임자는 일본당국과 언론들은 원자탄투하에 대해 미국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군사외교적으로 볼 때 일본의 주요동맹국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고 말하였다.

현실적으로 아베정권은 원자탄투하에 대한 미국의 과거사를 들추어낼수록 그 시기에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감행한 일제의 만행이 부각되기때문에 국익에 저촉된다고 보고있다. 국익이란 현 정권발족후 국책으로 된 력사외곡이다.

미국상전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남조선과 일본군성노예문제까지 저들의 요구대로 전격《합의》한 이 섬나라에서 력사외곡이 더욱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속에 군국주의적력사관과 복수주의적감정이 주입되고 재침을 위한 국내의 사상정신적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일본집권층이 노리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력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핵참화의 진상을 고발하는 히로시마, 그에 대한 미당국자의 행각을 놓고 저마끔 제 리속을 챙기려 하는 미일의 처사는 미국과 일본이야말로 평화와 안전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은 결코 나라들사이에 흔히 있을수 있는 외교관례에 따른것이 아니다.

배 금 희

에 죠 트 인 사 의 글

조선에는 미국의 압박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에죠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인 에죠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가 신문 《알 아흐바르》 4월 17일부에 《선군정치와 지구상의 귀신과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반도의 사태발전을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떠드는 미국이 철면피하게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을 조종하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때로는 《민주주의전파》를 운운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인권옹호》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많은 경우 경제적봉쇄를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거나 저들의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을 지구상의 귀신으로 묘사해도 이상할것이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이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후 온갖 제재수법들을 다 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선군정치로 하여 미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뿐아니라 그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 조선은 자기의 핵능력이 전쟁억제력이지만 민족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당하는 경우에는 선제타격수단으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신호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각종 현대적무기들로 장비한 수만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켜왔다.

1950년대에 미국은 조선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지 않는가?

정전협정을 고집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일으키자는것인가?

미국의 대조선압박은 조선인민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특질을 미국은 결코 리해하지 못한다.

조선은 핵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선군조선은 존엄의 귀감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성과를 축하하여

방글라데슈에서 경축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슈의 다카에서 21일 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등 각 정당, 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출판보도부문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모스타파 자말 하이더,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기적같은 성과들을 이룩하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반영이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김정은각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승리를 향한 력사적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신문 글 게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과를 축하하여 베네수엘라신문 《메이》 21일부가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한 베네수엘라의 정당, 단체들과 조선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들은 그이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 지지

에죠트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9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강조하였다.

에죠트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하고 동부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가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성원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국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사령관이 4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만일 페르샤만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이 이란을 위협하려 한다면 이란무장력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주요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관광업발전조치

페닌정부가 최근 관광업발전을 위한 전문기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기구는 나라의 많은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관광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원유탐사

케냐아에서 원유탐사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현재까지 나라에서 탐사, 확보된 원유매장량이 7억 5 000만bbl에 달하였다.

이것은 종전에 비해 1억 5 000만bbl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나라들사이의 협조

이란과 인디아, 아프가니스탄이 23일 지역적인 경제무역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조인식에 세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협정에 따라 이란의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항구를 세 나라를 련결하는 무역통로의 거점으로 리용하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모내기를 하고있는 캄보쟈농민들

《서방의 조선에 대한 〈협오증〉과 전쟁위험》

로씨야인터네트신문의 글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신동방관찰》 11일부가 《서방의 조선에 대한 〈협오증〉과 전쟁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서방언론들은 소문과 립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것처럼 보도하고있다.

《탈북자》들의 말을 무턱대고 반복선전하고 너무도 명백하여 쉽게 반박할수 있는 거짓주장들을 끊임없이 보도하다가 단치한 처지에 빠져들군 한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비난하는 비평가들도 이 나라에 집없는 사람과 문맹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것은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에 대한 서방의 《협오증》은 공정한 언론에 대한 모독이며 조선반도뿐아니라 인류에게 재난적인 후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전략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인민을 《악마화》하고 고립시키려 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악의에 찬 발언들과 비난들은 그 사실여부를 파헤침이 없이, 조금도 려과됨이 없이 그대로 전파되고있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으로 되고있기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목적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협오증》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인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아야 할것이다.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대규모항의행동 계속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당국의 부당한 로동법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항의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17일에만도 약 6만 8 000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시위와 파업들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로동법개정조치를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경찰들이 수많은 항의행동참가자들을 체포해갔다 한다.

※ ※

프랑스의 각지에서 17일 철도부문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들이 벌어졌다.

파업들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철도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회사당국의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파업들로 나라의 렬차운행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북극에서의 치렬한 리권쟁탈전

북구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 맹렬하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지구의 마지막보물고로 불리울 정도로 북극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다. 특히 북빙양의 해저에는 무진장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여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로씨야와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지역기구들이 북극에 눈길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유럽통맹위원회는 전을 럽적인 규모에서 북극에서의 에네르기, 어업 등 분야의 활동기구들을 창설하고 개발계획들을 추진시키는것과 함께 선차적인 전망계획들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통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유럽통맹의 새로운 북극정책발표회에서 통맹이 북극개발에서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들은 북극개발을 위한 대국들의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유럽통맹이 로씨야에 뭇지 않게 지역개발에 적극 달라붙기 시작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남극과 달리 북극에는 륙지가 없는것으로 하여 령유권을 규제한 명확한 법적틀거리가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정확한 주인이 없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잠재적인 해상통로, 대규모어장이 될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를 련결하는 바다길로서 다른 수송로들보다 거리가 훨씬 짧으면서 안전하다.

이 항로를 리용하면 배길이 수에즈운하로 가는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항행시간도 훨씬 단축되여 그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크다.

이미 로씨야는 원유 및 가스채취 등 북극에서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유럽으로부터 아시아까지의 전통적인 항로를 대신할수 있는 북극항로개척에 진입하였다.

2020년까지 3척의 새 세대 원자력쇄빙선을 무어 북빙양의 해상로를 따라 선박들의 항행을 보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몇몇 탐험가들의 관심대상으로만 되여왔던 북극이 오늘은 연안국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대결마당으로 뒤바뀌고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북극이 얼음덮이포를 서서히 벗어던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대결기운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로씨야와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극쟁탈전에 뛰여든 나라이다.

랭전시기 쏘미쌍방은 사상과 리념의 대결로부터 출발하여 북극의 얼음산밑에 잠수함들을 침투시켜 서로 상대방을 미싸일들로 타격할 목표를 세우고 정보전과 군사대결전에 열을 올리였다. 두 대국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랭전이 끝난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특수기관들의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전부터 북극문제를 전문취급하고있다. 그만큼 북극은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미국립지리정보국이 20년동안 북극의 해도를 작성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북극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미국의 원자력잠수함들이 바렌쯔해에로 활발히 진출하고있다.

미국은 북극을 차지하는데 나토성원국들을 인입시키고있다.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압축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기도는 북극이라고 하여 결코 례외로 되지 않고있다.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로씨야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로씨야의 한 지정학전문가는 북극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한 나라들중 몇몇은 나토성원국이다, 발사된 한도미싸일이 북극을 지나갈 때의 궤도가 가장 짧기때문에 이곳은 전략적중요성을 가진다, 북극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북극의 전략적가치와 경제적가치가 날을 따라 부각되고있다, 북극에서 각국사이에 각종 형식의 도박이 의연 계속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풍부한 자원과 북부해상길의 잠재적인 경제적가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가치, 이것이 오늘 나라들사이에 벌리는 쟁탈전의 기본요인이다.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한 로씨야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2014년말에 채택된 로씨야의 새로운 군사원리에 처음으로 북극에서의 로씨야의 국가리익을 담보하는 조항이 담겨졌다.

때를 같이하여 로씨야의 북극련합전략사령부가 북극에서 정식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령부는 주로 북극에 배치된 로씨야의 모든 부대들과 현존 병종들을 관할하는데 북극에서 로씨야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로씨야 국방상은 자기 나라가 북극에서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고있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쏘련시기에 볼수 없었던 규모에서 필요한 모든 현대적장비들이 기지들에 갖추어지고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도 이에 뒤지려 하지 않고있다.

카나다 역시 북극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북극자원개발을 나라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단마르크, 스웨리에, 노르웨이와 같은 북극연안나라들은 물론 인디아, 일본 등 아시아나라들도 북극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앞으로 북극을 둘러싸고 나라들사이의 리권쟁탈전이 더욱 치렬해질것이라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세계적인 자연에네르기개발추세

많은 나라들이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자연에네르기원천들을 찾아 리용하려 하고있다.

날이 감에 따라 자연에네르기개발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는것은 원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자원들이 지구상에서 고갈되여가고있고 더우기는 그 사용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산생되여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있는 자연에네르기자원으로는 수력, 태양열, 지열 등이 되고있다.

자연에네르기의 리용은 화석연료에 의한 에네르기리용보다 환경에 피해를 덜 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풍력에네르기만 보아도 1kW의 전력을 생산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가스발전소에 비해 5배,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10배나 적다고 주장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의 원가가 낮아지고있는것도 이 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풍력과 태양열 등에 의한 전력생산원가는 원유, 가스, 석탄에 의한 전력생산에 견줄수 있을 정도이며 생물, 수력, 지열을 리용한 전력생산의 원가도 화력발전소와 원유발전소, 가스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원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다고 한다.

자연에네르기리용분야가 하나의 중요산업으로 발전하고있는 실정으로부터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650만명에 달하고있다. 그 수는 2030년까지 약 2 000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

자연에네르기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그에 의한 전력생산을 정책적목표로 내세운 나라가 2004년에는 불과 48개였던것이 2013년에는 144개로 늘어난 사실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현재 자연에네르기리용에서 력을 보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력수요의 절대량을 자연에네르기로 보장하고있다.

케니아는 자기 나라에 풍부한 지열에네르기로 총전력생산량의 약 50%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에스빠냐도 현재 국내전력수요의 19.4%를 풍력에네르기로 보장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리용의 우점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그 개발사업에 뛰여들고있다.

딴자니아정부는 지열탐사사업을 다그쳐 그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11일 지열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앞으로 7년동안 지열에네르기에 의한 1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이 조성되게 된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마로끄에서는 태양열발전소건설착공식이 진행되였다. 교외에 건설되는 이 발전소의 전력생산능력은 58만kW에 달한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전력수요의 42%를 재생에네르기로 충당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인디아정부는 2022년까지 총전력생산의 약 22%를 풍력에네르기로 보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이 나라의 국가전력생산에서 풍력에네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고 한다.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를 더욱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일반적으로 태양빛전지판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효률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비오는 날에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새형의 태양빛전지판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태양빛전지판에 그라펜으로 얇은 층의 피복을 씌움으로써 태양빛뿐아니라 비물을 리용해서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바다물의 흐름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수중타빈설계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이러한 착상을 하게 된것은 바다물흐름이 화석연료나 다른 자연에네르기보다 지속성과 믿음성이 있으며 깨끗하면서도 재생가능한 동력원천이라고 보았기때문이다.

지금 많은 경우 지구상에서 점점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태양에네르기와 풍력에네르기가 주요자연에네르기원천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낮과 밤, 계절과 기후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그 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할수 없고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바다물의 흐름을 리용한 전기생산은 이러한 결점들을 능히 극복할수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이 타빈은 물면으로부터 100m깊이에서 동작하는데 그 깊이에서는 물흐름이 폭풍이 불어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한다.

타빈은 몇개 인되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여있어 판리, 정비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들며 고장률도 낮다고 한다.

3개의 타빈날개는 바다물흐름이 돌려주는데 타빈은 현지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쉽게 끌어올리거나 내릴수 있게 설계되여있다.

연구사들의 목표는 300개의 타빈이 설치된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자연에네르기개발에서 하나의 큰 전진으로 된다고 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것이다.

김 국 철

ㄱ-6108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